불교 수행, 지계에서 시작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㉛ 능엄경의 도량안립(道場安立)

〈원문〉 아난이 가사를 정돈하고 절을 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대비하는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부처가 되는 법문을 깨달아서 의혹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제도 받지 못했어도 먼저 남을 제도하려는 것이 보살의 발심이요, 자기의 깨달음이 이미 원만해지고 다른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은 여래가 세상에 응하는 일' 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제도되지 못했으나 말겁의 일체중생을 제도하려 합니다. 세존이시여, 말겁의 중생들이 부처님 계실 때와 점점 멀어져 그릇된 스승들의 설법이 갠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많아질 적에 그 마음을 거두어 삼마지에 들게 하려면 어떻게 도량을 안립하여야 마군의 일이 멀어지고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대중 가운데서 아난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구나. 네가 물은 것처럼 도량을 안립하여 말겁에 빠진 중생을 구호하려거든 나의 비나야 가운데 설한 세 가지 결정적인 뜻을 수행해야 하느니라. 이른바 마음을 거두는 것을 계(戒)라 하고 계(戒)를 인하여 정(定)이 생기며 정(定)을 인하여 혜(慧)가 일어나나니 이것을 삼무루학(三無漏學)이라 하느니라. 만약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이 그 마음이 음란치 아니하면 곧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삼매를 닦는 것은 진로(塵勞)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니 네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삼마지를 닦게 하려거든 마음의 음욕을 끊게 하여야 하나니 이것이 선불세존(先佛世尊)의 첫 번째 결정적인 청정한 가르침이니라.

아난아, 네가 세상 사람을 가르쳐 삼마지를 닦게 하려거든 살생을 끊게 해야 하나니 이것이 선불세존의 두 번째 결정적인 청정한 가르침이니라.

아난아, 네가 세상 사람을 가르쳐 삼마지를 닦게 하려거든 그 마음에 투도를 아니하고 투도를 끊게 해야 하나니 이것이 선불세존의 세 번째 결정적인 청정한 가르침이니라.

〈강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쭌다. 성불하는 법문을 잘 들어 알았으나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보살의 발심은 자신이 제도 받지 못했더라도 남을 먼저 제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량을 어떻게 안립(安立)해야 하는지 여쭙고 있다. '도량안립' 이란 도량을 세운다는 뜻이다. 원래 도량이란 깨달음을 이룬 장소를 뜻하는 공간적인 개념이나 그러한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동기가 되는 모든 작용을 도량(道場)이라고 한다. 〈유마경〉에서는 직심(直心)이 도량이라 하고 이어 보시, 지계 등 육바라밀을 도량이라 하였다. 〈능엄경〉의 도량안립은 세 가지 결정적인 뜻으로 한다고 밝힌다. 비나야는 율장(律藏)을 말하는데 마음을 섭수(攝受)하는 것을 계(戒)를 삼고 계를 인하여 정(定)이 생기고 정을 인하여 혜(慧)를 발한다 하였다. 말하자면 마음이 잘 단속된 것이 계가 되고 이로 인해 삼무루학(三無漏學)이 성취된다 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삼학(三學)에서 계를 대승의 심계(心戒)로 설명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음계(婬戒)를 먼저 내세우면서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않으려면 음심(淫心)을 먼저 끊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선불세존의 첫 번째 결정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선불(先佛)이란 과거의 부처님 곧 선대(先代)의 부처님이란 말이다. 살(殺), 도(盜), 음(婬)을 음, 살, 도로 순서를 바꾸어 세 가지 결정적인 청정한 가르침(決定淸淨明誨)이라 하였다. 〈능엄경〉은 계율의 엄격한 실천을 요한다. 육식(肉食)을 금하고 오신채(五辛菜)뿐만 아니라 우유를 마시는 것조차 금하고 있다. 육식과 우유까지를 금하는 것은 불살생(不殺生)을 계율을 간접적인 영역까지 확대하여 몸으로 행동화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은 계율을 지키는 행동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무아로써 지계바라밀 행해지면…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㉛ 보시바라밀과 지계바라밀

6신통을 갖춘 진여보살은 생멸문 전체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디든지 마음대로 오고 갈 수도 있다. 9지 보살은 천이통을 활용해서 모든 중생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숙명통과 타심통을 활용해서 중생들의 업보와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역무육입진을 통해 모든 반연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이 6신통의 권능 때문이다. 10지 법운지에서 행해지는 보시바라밀은 생멸문의 본원인 원초신을 제도하는 것이다. 진여보살이 생성해내는 밝은성품으로 생멸문 전체를 덮으면 법운지에 들었다고 말한다. 그 상태에서 역무명색진(亦無名色盡), 역무식진(亦無識盡), 역무행진(亦無行盡), 역무무명진(亦無無明盡)을 행하면서 생멸문 전체를 제도한다. 역무명색진(亦無名色盡)을 통해서는 생멸 정보 간에 이루어지는 인연적 성향을 제도한다. 역무식진(亦無識盡)을 통해서는 원초신의 식의 바탕을 제도한다. 그러면서 불공여래장을 완성시킨다. 역무행진(亦無行盡)을 통해서는 밝은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한다. 이로써 자연지(自然智)를 성취한다. 역무무명진(亦無無明盡)을 통해서는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한다. 이로써 공여래장을 완성시킨다. 이것이 보살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보시바라밀이다.

다음은 지계바라밀이다. 지계란 받아지니고 지키는 것이다. 생멸수행의 지계바라밀이 있고 진여수행의 지계바라밀이 있다. 생멸수행의 지계바라밀은 세 가지 관점으로 행해진다. 첫 번째 관점은 무아적 관점이다. 의식 · 감정 · 의지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밝은성품적 관점이다. 청정함, 착함, 떳떳함을 지키는 것이다. 세 번째 관점은 율법적 관점이다. 5계, 10계, 108계, 250계를 지키는 것이다. 무아적 관점으로 지계바라밀을 실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정(定)의 주체를 세우고 그것에 입각해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쓰는 것이다. 무념, 무심, 각성, 본성이 정의 주체이다. 두 번째 방법은 본성 · 각성 · 밝은성품에 입각해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쓰는 것이다. 중간반야해탈의 단계에서 행해지는 '무아' 의 실천이다. 사다함의 경지이다. 세 번째 방법은 본성의 간극에 몰입해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종반야해탈의 단계에서 행해지는 무아의 실천이다. 아라한의 경지이다. 머릿골 속의 텅 빈 자리에 입각해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쓴다, 무념에 입각해서 '무아' 를 실천하는 것이다. 가슴바탕에 세워진 편안한 자리에 입각해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쓴다. 무심에 입각해서 '무아' 를 실천하는 것이다. 지켜보는 마음으로 의식 · 감정 · 의지를 쓴다. 각성에 입각해서 '무아' 를 실천하는 것이다. 각성으로 무념과 무심을 비춰보면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쓴다. 본성에 입각해서 '무아' 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아로써 지계바라밀을 행하는 세 가지 요지이다.

무아로써 지계바라밀이 행해지면 밝은성품으로 이루어지는 지계바라밀과 율법으로써 행해지는 지계바라밀은 저절로 성취된다. 진여수행에 있어서 지계바라밀을 행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스스로가 분리시킨 생멸심을 저버리지 않고 제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진여심을 훼손시키지 않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10지의 절차에 따라 서로 다른 지계바라밀이 행해진다. 진여수행에 있어서 첫 번째 지켜야 할 지계바라밀은 열반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환희지에서 행해진다. 이구지에서는 스스로가 분리시킨 생멸심을 진여심과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발광지에서는 자성중생서원도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4지 염해지에서는 무념처를 통해서 생멸심의 의식을 일치시켰을 때 그 의식에 관여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㉛ 여래를 보려면

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도 아니다

알면 너무 쉽고, 모르면 너무 어렵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와 해석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단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작곡가가 하나의 음표를 이용하여 다양한 음률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의 단어도 아주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사전적인 하나의 의미로만 알고 있다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음률을 듣지 못한다. 음표가 위치에 따라 춤을 추듯, 단어도 음률을 가지며 춤을 출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단어 혼자만으로는 춤을 출 수가 없다.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표현력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단어는 독립적이지만 따로 떨어뜨려 놓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뒤섞어 놓아서도 안 된다.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 원래부터 그곳에 있는 단어처럼 놓아야 한다. 그렇게 놓아지면 그 단어는 본래의 단어가 아닌 새로운 단어가 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단어처럼 속삭이는 소리로 들어보라고 외치는 것 같다. 숨겨져 있는 소리 같지만,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사유한 인식과 기억하는 모든 것은 버려지고 관념 없이 듣기만 한다면, 숨겨진 소리가 아닌 본래 있는 소리를 듣게 되고, 지금까지 본래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무엇을 알지 못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마음과 조금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여래가 세상에 태어나 정각을 증득한 것은 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네. 언어로 말할 수 있고 망상으로 분별한다면 상이나 혹 무상의 오류에 떨어지고 마네. 만약 분별 망상을 없애 버린다면 어리석은 범부의 상과 무상의 망견을 멀리 떠나 마음이 절로 청정해진다네."

'안다', '모른다' 는 단어는 옳고 그름의 뜻이 없지만, 알게 모르게 옳고 그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안다는 것은 의기양양하고 우쭐하게 만들고, 모른다는 것은 조금 겸연쩍고 부끄럽게 만든다. 그러나 정작 안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면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모른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상의 지식은 정답이 없다. 세상에서 안다는 것은 어떤 노력에 따라 대상인 지식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그때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섭렵하여 기억하는 것이 다양하고 많은 것일 뿐이다. 그러나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정보를 많이 외워 아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선택할 수 없음을 알 때 진리가 된다. 만약 진리가 누구로부터 선택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안다는 의미도 이와 같다. 안다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물질로서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물질에 대한 부정의 표현밖에 없다. 그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색다른 묘미를 가지게 된다. 진리가 가진 단어의 묘미를 안다면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언어들이 사용될 때마다 고목에서 새싹이 피는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진리를 아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지금까지 보고 들은 기억으로 아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고 알게 되면 이것이 진짜 아는 앎이다. 부족하다고 더 배워봐야 그것 또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니 굳이 더 배울 필요도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모른다' 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이다. 모른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모르는 자를 자신이라고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것으로 되어버린다. 일반적으로 모르는 것은 관심이 없든지 아직 그것을 접하지 못해 배우지 못한 것이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아는 것도 없지만 모르는 것도 없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현재진행형이라 끝난 적이 없다. 오온에 대해 '나' 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알고 모르고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아는 마음이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마음이 모르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대로의 진행형에 점을 찍으려는 마음이 사라져, 본다는 마음도 없고 보지 않는다는 마음도 없어진다. 자신에 대해 안다는 마음도 없고, 모른다는 마음도 없을 때, 스스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여래를 알게 되는 것이 신비한 일이다. 왜냐하면 여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